〈인문사회계열〉

2021학년도
논술전형고사 출제배경 및 해설

SEOULTEC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문제 1]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문제 1]은 작품 이해와 응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보기>는 김현의 평론「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문학의 가치를 "억압 없는 쾌락"을 통한 반성적인 현실 인식, 더 나은 삶과 행복에 대한 요구로 정의한다. 제시문 (가)는 조세희의 소설『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한 가족이 약간의 이주 보조금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의 어두운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고정희의 시「우리 동네 구자명 씨」로, 출근 버스 안에서 피로에 지쳐 졸고 있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통해 가사와 돌봄을 홀로 떠맡는 여성의 고단한 현실이 묘사된다. 제시문 (다)는 최인훈의 소설『광장』으로, 주인공이 남북한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고 중립국행을 감행하게 된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문 (라)는 신동엽의 시「산문시 1」로, 대통령에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중립국의 이미지가 묘사되고 있다.

2. 예시 답안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학의 가치는 문학작품에서 "억압 없는 쾌락"을 느낌으로써 "수모와 아픔"을 주는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을 반성하며,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 (가)와 (나)는 가족과 그 구성원이 겪는 억압적인 현실을 다룬다. (가)는 한 가족에게 닥친 강제철거의 현실을 묘사한다. 독자는 (가)를 통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철거민의 현실이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가득한 "죽은 땅"임을 인식한다. (나)는 여성으로서 구자명 씨가 겪는 가부장적인 현실을 묘사한다. 독자는 (나)를 통해 "한 식구의 안식"을 떠맡은 구자명 씨의 쪽잠이 "죽음의 잠"임을 공감한다. (다)와 (라)는 각기 다른 '중립국'을 제시하고 있다. (다)는 주인공의 중립국행을 그리고 있다. 독자는 (다)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강요가 인간을 향한 폭력임을 인식하며, 주인공의 중립국행을 바라보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라)는 이상적인 중립국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독자는 (라)를 통해 농부에서 대통령까지 모두 평등한 삶, "사람 죽이는" 무기들이 들어올 수 없는 평화를 꿈꾼다. 결국 독자는 좋은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된다. (621자)

3. 출제 근거

김창원 외,『고등학교 문학』, 동아출판, 2018, 243-248쪽, 252-253쪽.
류수열 외,『고등학교 문학』, 금성출판사, 2018, 34쪽, 244-253쪽.
윤여탁 외,『고등학교 국어 I 』, 미래엔, 2018, 117쪽.

[문제 2]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과학 기술 분야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여러 이해 방식을 변화시킨다. 특히 과학 기술 발달이 변화시켜 온 사회 내 담론들은 독서, 언어와 매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여러 분야에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문제 2]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시문 (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로봇이 인간과 대화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존재로 성장해가는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나)는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에 기술된 내용으로, 인간 주체는 타자를 존중하고 환대함으로써 진정한 주체됨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다)는 근대 주체 개념의 토대를 마련한 데카르트의 사유를 묘사한 장면으로 렘브란트의 그림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근대적 사고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신체와 동물을 포함한 모든 타자를 기계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 (라)는 동물권 보장에 대한 담론을 소개하며, 인간 이외의 동물을 차별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는 우주와 자연,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구두끈 이론'을 소개한다. <보기>의 글은 과학 기술 발달로 최근 시작된 로봇권 논의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글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다른 타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가), (나), (다), (라), (마)가 제시하는 인간 주체와 타자 개념에 대한 각각의 관점을 잘 파악하고, 이들이 <보기>에 제시된 주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서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예시 답안

(다)에서 보듯 데카르트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근대적 인식은 지나치게 이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고민하기 어렵게 한다. <보기>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로봇이 인간에게 새로운 타자로 등장하게 된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 (가)가 제시하듯, 로봇은 인간과 대화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존재로 성장해 왔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로봇이라는 새로운 타자와의 경계를 재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에 부응하려면 우리는 전통적인 인간 경계에 대해 다시 성찰하고, 인간이 함께 삶을 영위해 온 다른 모든 타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라)에서 보듯 동물에게도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의 '구두끈 이론'에 의하면 우주와 자연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이어져 있다. 인간과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로봇 또한 인간이 정복하고 배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존중하고 환대해야 하는 존재일 수 있다. (나)의 내용과 같이 우리의 삶은 이성만이 강조된 동일자가 아니라 타자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결국 우리는 로봇, 동물, 자연과 같은 타자를 마주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주체됨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609자)

3. 출제 근거

고형진 외, 『고등학교 독서』, 동아출판, 2018, 130쪽.
방민호 외, 『고등학교 독서』, 미래엔, 2018, 136-139쪽.
이관규 외,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비상교육, 2018, 192쪽.
정창우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7, 62쪽.
정탁준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7, 62쪽.
황인표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8, 58쪽, 152쪽, 220쪽.

[문제 3]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문제 3]은 <보기>에서 제시한 혁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골드스톤의 『혁명』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혁명의 목적, 방법, 결과라는 요소를 제시하여, 혁명은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 대중 동원을 방법으로, 정부를 강제로 무너뜨려서 새로운 정치제도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윤리와 사상』교과서에서 제시된 맹자의 '역성혁명' 개념을 바탕으로『맹자강설』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제시했다. 역성혁명은 국가의 안정과 백성의 평안이라는 사회 정의에 부합하나,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임금만 바뀔 뿐 기존의 정치제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보이지 않아서 <보기>에서 제시한 근대적 정치 혁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나)는 영국 자유주의 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두 종류의『세계사』교과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공장법을 유럽 최초로 제정했다는 점, 종교 차별을 금지하였다는 점, 신흥 상공업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여 새로운 정치제도를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 동원을 통한 정부 전복이 아니라 의회 주도로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합법적 제도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보기>에 제시된 혁명의 관점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제시문 (다)는『국어 1 -수업 진행 자료집』에서 발췌한『홍길동전』의 내용으로 율도국에 관한 부분을 추가해서 다듬었다. 홍길동의 율도국 건설은 목적과 방법에서 <보기>에 제시된 혁명의 관점에 부합한다. 그리고 서얼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정치 사회 질서를 수립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 조선 정부를 강제로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제시한 혁명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시문 (라)는 프랑스혁명에 관한 내용으로 두 종류의『세계사』교과서와 서정복의『프랑스 혁명』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기존의 경제적, 신분적 불평등 타파라는 목적, 민중 동원이라는 방법, 공화국 수립이라는 결과 모두 <보기>에서 제시한 혁명에 부합한다. 이처럼 다양한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 3]은 제시문 분석 능력과 여러 교과목들의 내용을 연계해서 이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2. 예시 답안

<보기>에 제시된 혁명은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 대중 동원을 방법으로, 정부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제도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의 프랑스 혁명은 기존의 경제적, 신분적 불평등 타파를 목적으로 민중을 동원하여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와 정치 질서를 이룩했으므로 목적, 방법, 결과 모두 혁명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은 <보기>에 제시된 혁명의 목적, 방법, 결과라는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가)에서 맹자는 국가의 안정과 백성의 평안을 목적으로 임금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임금을 바꾸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고 새로운 정치제도도 제시하지 않았다. (나)에서 영국은 자유주의 개혁을 목적으로, 공장법 제정, 종교 차별 금지, 선거권 확대를 이루었으나, 대중 동원을 통한 정부 전복이 아니었고 의회 주도 하에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는 합법적 제도 변화를 추구했다. (다)에서 홍길동은 활빈당을 세우고 수령들의 불의한 재물을 탈취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경제적, 신분적 불평등을 타파한 이상국을 건설했지만, 조선 정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혁명의 관점에는 (라)만 부합한다. (625자)

3. 출제 근거

김형종 외,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7, 145-147쪽, 151쪽.
류지환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18, 37쪽.
서정복, 『프랑스 혁명』, 살림, 2013, 20-30쪽.
이기동 역해, 『맹자강설』, 진심장구하 14장, 성균관대출판부, 3판, 2010, 501쪽, 683-684쪽.
최영환 외, 『고등학교 국어 1 -수업 진행 자료집』, 미래앤, 2018, 105쪽.
최준채 외, 『세계사』, 미래엔, 2017, 142-145쪽, 147쪽.
잭 A. 골드스톤, 『혁명』, 노승영 옮김, 교유서가, 2016, 17쪽.